

# “길이 없으면 우리가 만든다!” 제9대 임기철 총장 취임식 개최

- 지난달 4일 이사회서 선임... 16일(수) 취임식 열려
- 혁신 위한 3대 추진전략 제시... 대학순위 제고 및 기금 조성 등 약속해



[사진1] 제9대 임기철 총장이 취임식에서 원기를 흔들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가 임기철 박사(만 68세·1955년생)의 제9대 총장 취임식을 16일(수) 오후 2시 지스트 오룡관 다산홀에서 개최했다.

앞서 지스트 이사회(이사장 한문희)는 지난달 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9대 총장에 임기철 前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을 선임한 바 있다.

임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과 함께 혁신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실사구시형 과학기술 중추 연구기관’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특히 “혁신, 길이 없으면 우리가 만든다”는 지스트 정신을 내세우며 ▲잠재역량 강화(Potential-Up), ▲공동체 정신 함양(Harmony-Up), ▲지스트 가치 제고(Value-Up)의 3대 추진전략(3-Ups)을 참석자와 공유하고 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선임 이후 한 달간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를 단행하며 임기 4년간 추진할 혁신의 기틀을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2] 임 총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임 신임 총장은 구체적으로 **QS세계대학평가 100위권 도약** 달성과 아시아 '**AI 헤드쿼터**' 구축 및 **지스트 분원 설립** 추진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지주회사인 '**지스트 홀딩스**'를 설립해 창업을 장려하고 지역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발전기금을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광주·전남 지역에 '**연구 및 의료장비 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유치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 신임 총장은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는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기획조정실장과 부원장 등을 역임했고 청와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8대 원장을 맡았으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부회장,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를 지냈다.

이날 취임식에는 **前국회부의장인 박주선 한국석유협회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한문희 지스트 이사장, 김해명 지스트 발전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과 민형배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 이형석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임 총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사진3] 제9대 임기철 총장과 취임식에 참석한 내빈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편 임 신임 총장은 취임식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원할 것**을 지시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예산이 조기 소진된 상황**이었으나, 이번 취임식 예산 절감으로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10월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게 됐다.**